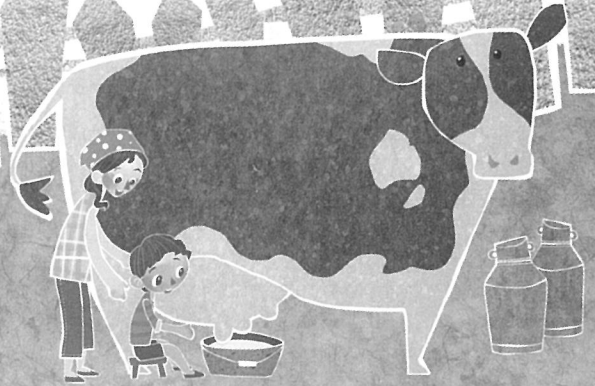


**월 2월 사양관리

집필자 :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임동현, 조용일



일반 사양관리

원유가격산정체계 변화, 유질 개선 노력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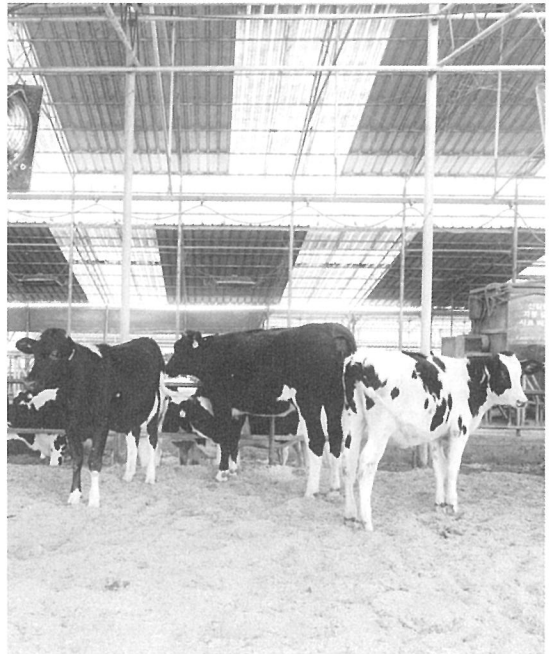
2월은 1월과 마찬가지로 젖소가 추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달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으나, 때때로 한파에 의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사육장 내외의 온도가 내려가면 젖소의 활동량과 채식량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우유 생산성 저하, 미끄러짐에 의한 탈골, 유두 손상, 송아지 설사나 폐렴 등에 의한 폐사와 같은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겨울철 추운 날씨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신생 송아지의 보온관리다. 밤낮의 기온차로 인해 갓 태어난 송아지가 감기에 걸리기 쉬우므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건으로 점액을 닦아주어 피부를 건조시키고, 적외선 보온등을 등위에서 쬐어 주어 실내 온도를 25℃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바닥은 따뜻하고 건조하게 해주고 깨끗한 깔짚을 깔아주며, 찬바람이 직접 송아지 몸에

달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초유를 급여하도록 한다. 또한 너무 온도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밀폐에 의한 환기불량으로 호흡기 질병이 발생하거나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따뜻한 오후 시간을 이용해 환기가 잘되게 해주어야 한다.



한편, 병신년 새해 낙농가가 접하는 첫 번째 변화는 원유가격산정 체계의 변화일 것이다. 2014년도에 처음으로 원유가격에 유지방 외에 유단백 함량 기준이 적용되었

고, 이에 이어 2016년 1월 1일부터 위생등급에 따른 원유가격 차등을 통해 유질규제를 강화하는 기준이 시행되었다. 원유기본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940원/ℓ 이지만, 체세포수가 50만/㎖이상(4·5등급)이거나, 세균수가 50만/㎖을 초과하면 원유기본가격 및 다른 항목 등급과 관계없이 100원/ℓ 이 지급된다. 낙농가가 수취하는 원유가격은 직접적이고 주된 소득원이므로 원유의 성분 함량 및 유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동절기에는 체세포수가 증가하거나 유방염이 발생하는 등 유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질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고, 착유우의 유두에 동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 착유 후 유두를 침지 소독할 때 직풍에 의한 유두 동상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 침지제와 글리세린을 1:1로 혼합한 후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거나 피부 보호제와 살균제가 포함된 겨울용 침지제를 사용하고, 유두 침지 후 마른 수건으로 유두를 감싸듯 쥐어 수분만 흡수하거나 시간적 여유를 두어 침지액이 마른 후 퇴장시킨다. 또한, 사육장 바닥을 깨끗하고 건조하게 해주어 세균이나 병원균에 의해 유방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질병관리

소 버즘 발병시 사람과 접촉 피하고 일광욕 시켜야

구제역이 2016년 1월 전북 김제, 고창 양돈농가에서 작년 4월 이후 8개월 만에 재발했다. 무엇보다 1934년 이후 구제역 청정상태를 유지한 전북에서 발생했다는 데 방역당국은 긴장을 하고 있다.

젖소 농가에서의 발생은 없지만, 인접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우제류 동물인 젖소 역시 감염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 농장의 방역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특히, 농장과 농장을 이동하는 사료차량, 집유차량, 가축이송차량, 분뇨처리차량 등에 대해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의 농장 방문을 자제하며 구제역 방역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에 맞는 방역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성우는 4~7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해 구제역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고, 신생송아지는 분만 후 어미소의 초유를 충분히 섭취한 다음 생후 8주(1차), 12주(2차)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짧고 축사 안에 계류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 버즘(Ringworm)과 같은 피부질환이 발생이 늘어난다. 소 버즘의 원인체는 사람의 무좀균과 유사한 곰팡이균에 의해 발생하며,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을 나타내는 가축과의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혹시 직접 접촉했을 경우 샤워를 하고 사용한 의복은 세탁해서 예방 하도록 한다.



동절기중 2월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아지고 햇볕이 따스해지는 시기이다. 소 버즘에는 햇볕이 특효약이므로 햇볕이 좋은 낮 시간을 이용해 일광을 쬐어주면 그 증상이 서서히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일교차가 심해지므로 송아지가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 축사 내에 차가운 공기가 바로 유입되지 않도록 보온에 주의하면서 자주 환기를 시켜주도록 한다.

또한 아침·저녁으로 운동장 등 결빙구간에서 미끄러짐 사고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 할 것이다. 미끄러져 생기는 고관절 탈구, 골절 등의 경우 발생하게 되면 예후가 아주 나빠 대부분 도태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습 결빙구간은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려 얼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톱밥 등의 깔짚을 깔아주어 조금이라도 미끄러움을 방지하도록 한다. 더불어 착유우의 물 섭취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착유우가 수분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우유생산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사성 질환 등 질병에 노출될 우려가 높으므로 특히 급수시설을 면밀히 점검해 동파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㉞